

2014 무대예술전문인력 지원 대상 공연장 선정 심사평

- 일 시 : 2014. 5. 16(금), 10:00~13:00
- 장 소 : 아르코미술관 3층 세미나실
- 심의위원 : 구근희, 김동석, 나한수, 송 전, 조성주(가나다 순)

무대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은 무대예술전문인력의 경력개발 및 현장진출 지원을 통한 전국 공연 제작 인력 인프라 구축, 공연창작여건 개선 및 작품 수준 제고를 목적으로 한 사업이다.

이번에 실시한 심의는 전국 500석 미만 민간공연장(등록 공연장) 중 무대예술전문인력(무대기술스태프)을 선발, 배치하고 인건비를 지원할 공연장을 우선 선정하는 것이었다.

이번 심의에는 총 102개 단체 113개 공연장(과전 요청 인력 198명)이 지원신청하여 공연장의 사업운영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30%), 사업 수행 능력(40%), 해당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파급효과(30%)를 기준으로 심사하여 총 81개 단체 89개 공연장(105명 인력 지원)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심의위원들은 지원신청한 공연장에 대해 심도깊은 토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판단의 근거를 공유한 후 심의를 진행하였다

지원신청 자격인 공연장 등록 여부 확인을 통해 미등록 공연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단, 미등록 공연장이라 하더라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등록공연장 전환지원 대상 공연장으로 선정된 공연장은 심의대상에 포함하였음), 무대예술전문인력(무대기술스태프)의 자질 향상을 위한 기회의 다양성 고려 측면에서 '다양한 공연콘텐츠' 및 '시설의 활용 가능성'을 가진 공연장을 선정하였다. 또한 동일 조건에서는 수도권보다 운영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공연장을 우선하였다.

무대예술전문인력 지원사업을 통해 무대예술전문인력의 경력개발 및 현장진출에 도움이 되고, 아울러 전국 민간분야 소공연장의 공연 제작 인력 인프라 구축을 통해 민간 공연예술분야의 창작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4. 5. 16

무대예술전문인력 배치 공연장 선정 심의위원 일동